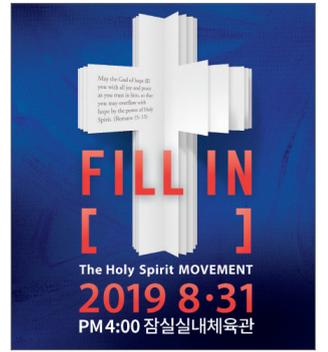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하나님 만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닮아 갈래요!”

다양한 은혜와 체험으로 뜨거웠던 교회학교 <2019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공부로 인해 지쳤던 영혼들이 회복되어 갔고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정말 좋았어요. 맛있는 간식도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도 했어요. 복면을 쓰고 찬양을 부른 후 누가 더 큰 환호성을 받았는지 겨루는 <복면 베드로> 순서가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할래요.” (초등2부 박인서)
“학교 친구 정우랑 여름수련회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등1부 이지후)
“저녁 말씀 집회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30-40분 동안 간절

히 기도했어요. 수련회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둘째 날 비전랜드 수영장에서 전도사님, 친구들과 물총 싸움도 하고 수영할 때도 재미있었어요.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이 느껴져요.” (소년부 양현준)
“올해 영아부 여름수련회는 ‘출동! 베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3개의 스토리 방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확인하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아교육 위원장 김분한 장로)

베드로처럼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
<2019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년부와 소년부가 7월 12일부터 2박 3일간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8월 11일 씨더스 콰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신약의 인물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과 사건들을 다룬다.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스토리 중심으로 다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 주강사는 교육 목사를 필두로 각 선교구 목사와 외부 특별 강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벽 예배, 저녁 집회, 그림 그리기, 성극, 조별 퀴즈대회, 코스형 체험 프로그램 등 부서별 연령에 맞게 성경을 중심으로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들로 꾸며졌다. 영아부에서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고 다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다.
특히, 소년부 아이들은 말씀을 외운 조부터 식사가 이루어졌다. 조은미 교사는 “아이들이 어른들 입장에서 상당히 수준 있고 긴 성경 요절을 열심히 암기하는 것을 볼 때 무척 대견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름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비전랜드 수영장과 밀레니엄공원에서 시원한 물놀이

를 즐겼고 물고기 잡기, 장애물 통과하기, 퍼즐 맞추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나누기, 말씀 암송, 조별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더욱 친해졌고 믿음의 추억을 쌓아갔다.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공부로 인해 지쳤던 영혼들이 회복되어갔고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을 베풀고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로 축복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명남 목사(교육1부)는 “믿음의 다음세대가 어깨 위에 세워지기까지, 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다음세대로 성장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ybpower@empas.com

강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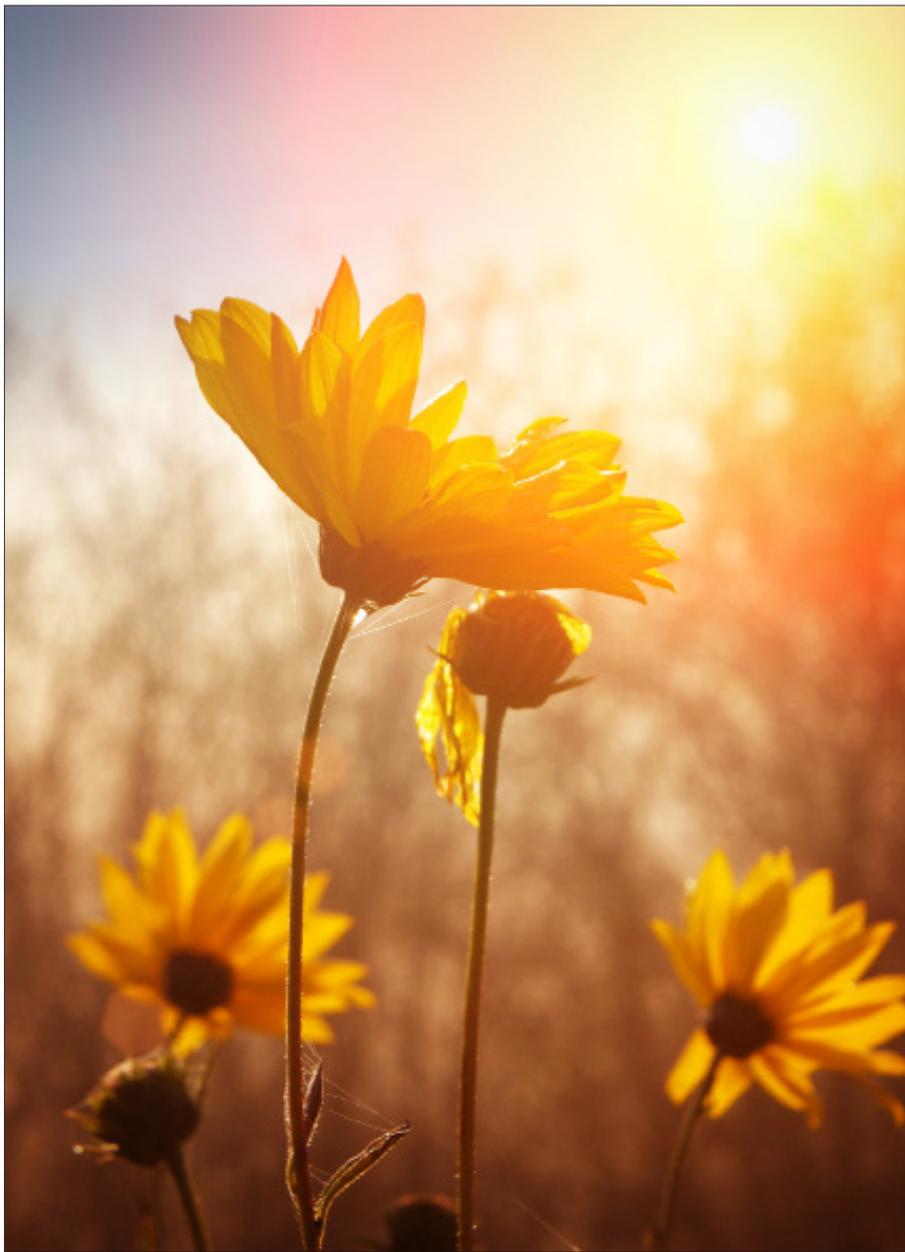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4~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새

“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

로운 생명의 삶을 부여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14절에서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17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굴이 하얗든, 검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14~19
14.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비우고 채워지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워짐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명화 중 <스텐버그의 십자가>란 작품이 있습니다. 화가 스텐버그는 성 베드로성당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그렸으나, 그림 값을 너무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피타’라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한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그림의 모델인 페피타가 그냥 팽개쳐진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무슨 사연이지요?” 화가는 여인의 질문이 귀찮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스텐버그는 당황스러웠지만 여인을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예

수님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세요.” 이를 듣고 여인은 금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텐버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수십 년 동안 그리면서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림값에만 관심을 기울였구나.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일 후 스텐버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림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삶, 새로운 목적이 있는 삶으로 강력하게 권하여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망의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바알브엘을 섬깁니다. 특히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죄를 짓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를 죽이고, 그 사건 하나로 2만5천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영원한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김정석 담임목사, 청년의 미래 위한 메시지 전해

7월 19일, CTS 기독교방송 뉴스 '피플 & 이슈'에 출연하여 대담 가저



이 시대 청년들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제시
김정석 담임목사가 7월 19일 오전 11시 CTS 기독교방송 뉴스 '피플&이슈'에 출연하여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담은 CTS 김덕원 기자가 함께 하였다.

김덕원 기자(이하 생략) : 공동대회장으로 있는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정석 담임목사(이하 생략) :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가 5번째가 됩니다. 각 연도마다 주제가 다름데 올해는 주제가 'Fill in []'입니다. 이는 좌절의 시대에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소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 준 것이 한 원인이지 않나 생

각합니다. 지금은 인구도 줄고, 성도수도 줄고 그로 인해 교회가 예전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청년들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회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세상 문화나 이단과 같은 반성경적 인 기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세상에 반성경적 기류가 만연한데, 그럴수록 청년들은 복음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어떤 메시지로 전해지길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대회를 통해 한 영혼, 한 청년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산과 평양의 부흥운동이나 영국교회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도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8월 31일(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리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을 다짐하며, 파송을 받아서 각자 교회로 돌아가는 4개의 섹션으로 나뉘 집니다. 그날에 우리 청년들이 한끼 금식하면서 나라와 교회, 나 자신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포토 뉴스



경주 임원 총회

7월 21일(주일), 경주위원회는 임원 총회를 열고 조가찬양대회 시상식을 실시했다.



감리사 협의회

7월 25일(목), 서울남연회 감리사 협의회가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B홀에서 열렸다.



몽골 어르비트 선교센터 건축 중
현재 몽골 어르비트 선교센터가 일정에 차질없이 건축 중에 있다.

담임목사 동정



- 7/19 상반기 목회세미나
- 7/19 CTS기독교TV 피플 & 이슈
- 7/21 경주 임원 총회
- 7/28 찬양예배

감독 동정



- 7/14 광림북교회 주일설교
- 7/21 광림남교회 주일설교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광림남교회, 오래된 건물지붕 보수하고 차량 교체해



노후된 시설 고치고 새로워진 외관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위치한 광림남교회는 2006년 봉헌되어 올해로 13년이 되었다. 10년이 넘는 세월만큼 노후된 시설이 생겨 이번 7월 두 가지의 교체 작업이 있었다. 첫 번째는 본당 건물의 지붕이고, 두 번째는 대형버스이다.

본당 지붕은 오랫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교체하게 되었다. 광림남교회 관재위원장 한채수 장로는 "세월이 흘러 기존 스페니쉬 기와에 균열이 가서 깨지고 각목이 썩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와 한 장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 바닥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교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실정이라서 서둘러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담임목사님의 최종 허락을 받고 골든브론즈 색의 징크 기와로 교체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지붕 교체로 더욱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모한 광림남교회는 세

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동백지구 복음전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광림남교회 버스는 주일예배, 트리니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의 밤, 장례 등 각종 행사 시 성도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버스 또한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잦은 고장과 소모품 교체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해 새 버스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교체하게 되었다. 버스를 새 것으로 바꿔 이동할 때마다 성도들은 여느 때보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어린시절 교회 몇 년 다녀본 것이 전부였던 나는 수원의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입학해 채플을 드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때때로 기도해주시는 선생님의 사랑과 친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다. 시골 출신인 나는 도시에서의 삶이 행복했고, 무언가 하고픈 열정과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채워졌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미래의 꿈과 생각이 많은 고교시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다. 함께 상담해주고 인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고, 내가 그런 교사가 되자는 믿음이 생겨 오늘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은혜 받은 후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 믿지 않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니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로 학교를 보냈더니 공부하는 하지 않고 예수에 빠졌다고 핀잔을 하셨다.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전하고 기도하기를 7년 후, 아버지는 임파선암 판정을 받았다. 더욱 급해졌다. 감독님의 방송설교를 들이대고 테이프를 사서 듣게 하기를 여러 번, 항암치료로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니 받아들이었다. 그 완강하던 아버지의 자존심이 하루 아침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 세례 받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채 그렇게 구박하던 어머니와 함께 1년여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다 주님나라로 가셨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1장 2절 말씀이 늘 마음을 두드림은 이때부터 더 강해졌다.

고등부 교사로 섬기며 한 주간 말씀자료를 왕창 만들어 전하려 하면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들끼리 대화시간 좀 달라고 나를 왕따 시킨다. 생각 끝에 묘안을 냈다. 먹을 거리를 잔뜩 사서 먹게 한다. 그 사이를 틈타 성경 강연회를 하듯 일사천리로 말씀 전하기를 몇 해.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어엿한 엄마 아빠로, 직장인으로, 학교 교사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장하여 같이 봉사하고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청소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는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박진서 권사(고등2부 부장)

[찾아가는 인터뷰 8회]
윤성영 성도 (21교구)



지난 5월 7일~15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71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오보이스트 윤성영 성도(23세)가 공동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윤성영 성도는 서울대학교 3학년인 재작년 프랑스로 유학,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유학을 가기 전까지 2부 나사렛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했다.

먼저 축하드리며, 콩쿠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는 30세 이하 젊은 음악인 발굴을 위해 1947년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로, 첼로의 거장 로스트포비치(1950년), 플루티스트 제임스콜웨이(1968년) 등이 역대 수상자들이에요. 매년 두 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 수상

의 다른 악기를 심사하는데, 올해는 오보에와 플루트, 내년에는 클라리넷과 바순이 경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대회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대회 일정과 곡이 나온 후 1년 정도 준비했어요. 고2 때 처음 비디오 심사를 통과해 참여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제 전공악기로는 5년만에 다시 열리는 대회이다보니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앞섰어요. 하지만 기도 후 연습에 임하거나 무대에 오를 때면 하나님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어요. 대회 당일 제 생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오보에를 전공하게 되었는지?

부모님과 우연히 간 음악회에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중 2악장의 잉글리쉬 호른의 매력적인 소리를 오보에로 착각하고 취미로 시작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공을 결정했어요.

프로필을 보니 학부의 모든 과정이 수석이던데 어머님(김진희 집사)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늘 연습실 밖에는 기다려주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번 콩쿠르에서도 파이널에 오르면 오시라 했는데 미리 오셔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시고 콩쿠르 기간 내내 예민해진 제게 방해 될까봐 멀리서 지켜봐주셨어요. 때로는 그 사랑이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응원은 채찍질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음악적 스승이자 신앙의 멘토

윤지원 선생님(27교구)은 초등학교 때 전공을 결정하면서부터 가르쳐주셨고 저를 교회

로 인도해주셨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음악이 좋아진다고 적극 추천하셨다가도 헤어지면 더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세요. 혹시라도 연습에 방해가 될까봐. 매년 여름이면 선생님과 오보에 캠프를 떠나요.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은 캠프에 갔다 오면 탈진이 되어 돌아오는데, 저희는 먼저 예배와 찬양 후 연습을 시작해요. 집에서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꼭 교회캠프를 다녀온 느낌이에요.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은지?

얼마 전 독주회를 했어요. 제 연주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설레고 감사해요.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뛰어난 테크닉이나 손놀림 등의 화려한 평가보다는 단 한명의 청중에게라도 진심이 전해지고 은혜와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어느 때 가장 기쁜지 생각해 봤어요. 연주를 할 때였어요. 이번 콩쿠르에서 파이널 곡을 연주할 때 각 악장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며 곡에 빠져 눈시울이 붉어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다시 태어나도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제목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이제는 주위도 둘러보고 좀 속도를 늦춰 가고 싶어요. 오보에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악기로 예배 때 사용되던 것이라고 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제4회 '물맷돌' 프로젝트-청년작가 초대전 공모

**제4회 '물맷돌' 프로젝트
청년작가 초대전 공모**

기독교적 세계관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할 청년 미술인을 초대합니다

- 공모내용**
공모지역 : 광림교회 전체 (본당 및 지성회) 등록 교인 중 만 23세 ~ 만 45세 이하 청년
공모분야 :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디자인, 사진, 미디어아트 등
공모주제 : 기독교 가치관에 완벽히 맞는 독창적인 작품으로 자유주제
공모형태 : 개인전 (장천갤러리에서 2인자 동시에 개인전)
전시장소 : 장천갤러리, 광림미술선교회 회원 자택주방
- 응모방법**
접수방법 : www.webnord.co.kr | MDPART | 010-8121019
종류 : 종이, 캔버스, 목판, 드로잉, 조각, 판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접수기간 : 2019. 7. 1 (일) ~ 2019. 8. 25 (일)
결과발표 : 2019년 9월 1(일) 오후 8시 이후, 웹사이트 공지 및 개별연락
- 전시일정**
전시기간 : 2019. 10. 6 (일) ~ 2019. 11. 1 (일)
전시장소 : 장천갤러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 문의**
광림미술선교회 :
전화인quiry 010-7146-3693, sunheejin@naver.com
이메일 장천부장 010-4187-8996, design1@hanmail.net

주최 : 광림미술선교회 후원 : 장천갤러리

수준 높은 기독교청년작가 발굴을 위해 기독교미술 문화사역에 헌신하는 광림미술선교회는 지난 2016년에 만 23세~45세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광림미술선교회 청년부' 모임을 만들고, 기독교미술인 청년작가를 위한 <물맷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물맷돌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물매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것처럼 거짓, 악함, 추함이 혼재하는 이 시대 미술문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이다.

'물맷돌' 프로젝트를 기획한 목적은 광림미술선교회의 젊은 작가 회원 확대뿐만 아니라 광림교회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개인전을 열기 힘든 청년 미술인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하여 영성 깊은 작가로 육성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로 장천갤러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광림미술선교회의 주최로 미술선교회 청년부가 주관하는 <제4회 '물맷돌'프로젝트-청년작가 초대전>은 오는 10월 6일(주일)부터 11월1일(금)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만 23세~45세 이하의 미술을 전공한 광림교회 청년으로, 1차 포트폴리오

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친 작가 1인을 선정하여 광림미술선교회 청년작가 1인과 함께 총 2인의 초대전을 한 달간 개최한다. 전시 염서 및 홍보, 간단한 오픈식 상차림도 지원된다. 선정된 청년작가는 광림미술선교회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부활절 기념전 및 추수감사절 기념 정기전에 참여하게 된다.

7월 1일(월)부터 시작된 접수는 오는 8월 25일(주일)까지이며, 웹사이트에서 출품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포트폴리오와 함께 접수한다.

<물맷돌 프로젝트>는 다양한 청년 미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존 미술선교회 작가들과의 폭넓은 소통의 계기가 되며 광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기독교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의 청년미술인들을 초대하는 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문의 : 서희진 총무 010-7141-3693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추억을 쌓았어요!”

교회학교 <2019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7월12일~8월 4일, 광림교회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유치부



소년부



영아부



유년부



유아부



중등부



신앙 간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가까이 있다

작년 8월은 저에게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청년부와 청년 1교구 속회에 참석하던 어느 날, 먼저 교육선교와 해외선교를 경험해본 숙원들은 선교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귀한 간증들, 그리고 빛나는 숙원들의 눈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 단기선교를 결단한 자매가 저에게도 몽골선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해외선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쓰임이 분명히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자리라는 편견이 뿌리깊게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해외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과 숙원들의 격려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2018년 몽골단기선교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 몽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광활한 땅이었고, 항상 들고 다녔던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끝없는 지평선을 맘껏 느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로 하루를 열고 오후에 예정된 사역들을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소통하는 시간들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저의 첫번째 해외선교는 잊을 수 없는, 애তұ한 은혜의 체험으로 남게 되었고 다녀와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로수길 선교팀과 속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한 번 더 몽골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 사이닝스쿨 미션데이를 통해 해외선교가 선교팀만의 사역이 아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몽골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해외선교임을 기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작년 몽골 선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매 순간 저와 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만큼, 올해도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팀원들 역시 누릴 수 있길 바라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부팀장이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철성도(청년부)

접속의 시대, 접속을 시도하며

- 목회현장 -



황영재 목사(9선교구)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 인터넷 초강국을 넘어서, 이제 모든 기기(가정용 가구, 생활필수품, 자동차 등)도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에 연결되어 모든 것이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작동이 가능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접속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목회도 끊임없이 접속(touch)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목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죄인으로 불리던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접속에 죄인들과 병자들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아직 대심방을 받지 않은 가정들 중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와 신앙에서 조금 떠나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수차례 접속을 시도하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손잡고 기도해주게 됩니다. 갑작스런 심방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는 가정도 있고, 몇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touch) 때문입니다.

전도 역시 접속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서 이번 7월부터 새로운 아파트 입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별로 조를 편성하여 매일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사 온 분들을 찾아가 선물을 드리고 교회를 소개하며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사하는 날이라 분주하기도 하고, 또 덥고 습한 날씨에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접속을 시도합니다.

온라인 시대는 계속되고 더 강화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기적은 오프라인의 접속을 통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접속의 시대에 더욱 접속을 시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 광림남교회 -



지난 7월10일(수) 오후 2시 광림남교회 나사렛성전에서 2시간 동안 예배위원회 주관 심폐소생술(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림남교회는 매주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예배 중 심정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예배위원들이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남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용인소방서 민간전문강사인 유근 강사

님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위원회 및 교역자, 그리고 성도들 35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순서는 1부 심폐소생술, 2부 제세동기 사용방법, 3부 실습의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부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교육이고,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동안 정확히 모르고 있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

었고, 그것을 통해 최초 상황 발생 후 4분간의 골든 타임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사용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꾸준히 연속적으로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하셨습니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정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라고 환자의 반응을 살핍니다. 둘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 및 119 신고 요청,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주위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셋째, 가슴압박 소생술(심폐소생술)을 할 가슴의 압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넷째,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모를 경우,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섯째, 심정지 환자의 기도 유지 후 인공호흡 2회 시행,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우리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재덕 권사 (광림남교회)

아침 햇살 속에 웃음꽃 피는 즐거운 동행 <한마음 걷기>

- 광림서교회 -



날마다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는 광림서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남성 속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지난 5월, 한강변에 있었던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가한 후 이를 매월 1회 광림서교회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서교회 근처에는 아침 인천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호수공원(둘레 4km)이 자리 잡고 있어 걷기에도 아주 적합한 조건입니다. 이영규 목사님과 전도사님, 속도원들과 협의하여 매월 첫 주 토요일은 온가족이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을 갖고, 남성속회 주최로 호수공원을 한 바퀴 걸으며 교체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6월 첫 주 토요일, 호렙산에 올라 기도의 등을 밝히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함께 남성속원들을 선두로 새벽기도회에 참

석한 교인들과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와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걷기가 끝난 후에는 교회로 돌아와 준비한 김밥, 빵, 커피 등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모두가 기도와 운동,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동시에 누리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2회인 7월 첫 주에는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였고 집에서 손수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해 오셔서 나누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특별히 새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도 참석해 관계성을 맺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후 한마음 걷기에 참석한 이명자 집사는 "새벽기도 후 이미 떠오른 햇살을 따라 삼삼오오 즐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위트 있는 수다에 웃음꽃이 피는 우리들의 걷기는 언제나 즐

겁고 유쾌한 소통입니다"라고 기쁨을 전했습니다.

전성현 집사는 "삶의 자리와 인생의 속도는 달라도 한 방향을 향해 내딛는 즐거운 동행이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많은 교인들이 8월 첫 주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획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마음 걷기를 통해 서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교회로 자리 잡고,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작은 밑알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서교회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채희철 집사 (광림서교회)

<호렙산 기도회> 공동체의 회복과 사랑 넘쳐

청년들, 올해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집중



내게 호렙산 기도회는 참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강한 힘으로 매일 붙들어 주신다. 2015년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하기 며칠 전날, 청년부 친구가 호렙산을 사모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꿈틀했다. 그래서 무작정 나와보았다. 하루만 나오고 그만둘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은혜가 하루, 이틀 이

어지더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5년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수없이 많지만, 두 단어로 정의하자면 '햇살'과 '회복'이다. 캄캄한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며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비춰오는 햇살이 참 좋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늘 비추고 계시던 사랑 같다. 그 은혜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어질 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다. 상처 많던 영육들이 절로 회복되어감을 느낀다. 새로운 사명도 주신다. 2019년 올해는 좀 더 특별한 기도제목과 은혜들도 허락해주셨다. 그중 하나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 몇 년간 우리 청년부는 호렙산 기도회 후 매일 샌드위치, 김밥, 따뜻한 차 등을 팔며 여름 교육선교

기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판매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후 매일 6시 10분 광림사회봉사관 5층에서 모여 40분간 기도회를 가졌다. 초반엔 망설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매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쌓으니 개인기도할 때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이 부어졌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간절함을 주셨다. 올해는 나보다 공동체의 외침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선교, 해외선교,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호진 성도(청년부)

누나와 남동생의 40일간의 특별한 동행

새벽 3시 반, '띠리릭 띠리릭' 알람소리에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고 압구정동에서 출발하여 올림픽대로를 달려 여의도 친정어머니 댁으로 향한다. 기독교 라디오방송 오프닝 멘트에 이어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들으며 남동생을 향한 나의 기도는 시작된다. 미국에 살고 있던 남동생은 구순이신 어머니의 부르심에 가족을 두고 혼자 귀국해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가족모임에서 어머니는 남동생에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꼭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해 보길 권하셨다. 때마침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집사인 여동생이 "오빠 딱 한 번만 참석해 봐"라며 남동생 시계에 알람을 맞추어 주었다. 10년 전, 친정어머니는 팔순의 나이에 호렙산 기도회 때 여의도를 운행하는 교회버스를 타고 40일을 완주하셨다. 지금은 여의도를 오가는 교회버스가 없다보니 남동생

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간절한 마음에 새벽에 일어나주지만 하면 내가 여의도까지 픽업하겠다고 했다. 남동생은 젊은 시절,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런 변화로 짐정리를 내게 맡긴 채 황급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낯선 땅에서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동생은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지만 잠시의 위로일 뿐 회복이 쉽지 않았다. 시간만 흐를 뿐 근원적인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호렙산 첫날, 동생을 태우고 여의도에서 교회로 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했다. 담임목사님의 "내가 누구인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등의 설교 말씀은 동생의 마음을 흔들었고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 나왔다. "아멘"을 크게 외치며 손뼉 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동생의 모습

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동생을 기다리셨다는 듯 안아주셨고 뜨겁게 만나주셨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는 40일을 예배드렸고 주일에는 호렙산 기도회 후 주일 예배까지 함께 했다. <제31회 호렙산 기도회>는 동생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내겐 동생을 향한 오랜 기도제목이 응답받는 시간이었다. 새벽 운전 길은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내며 못다 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의 시간이었다. 이제 호렙산이 끝나고 내게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다. 동생이 주일을 섬기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하리이다"(시 57:7)

이수자 권사 (21교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 감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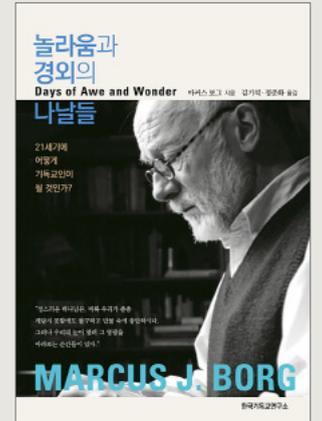
저희 가족은 2년 전 이사를 오면서 광림서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믿음의 줄기가 위로부터 흘러 내려와 신앙이 바르고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믿음의 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호렙산 기도회를 강요하지 못하고 다만 중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던 중 하나님께서 입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큰 아들은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섬기는 신실한 자매를 만나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믿음으로 가정을 준

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 가정에는 호렙산 기도회를 이야기하기 어려웠지만 "호렙산 기도회에 하루만이라도 나와 보라"며 가볍게 권유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나오겠다고 아들 둘이 호렙산에 참여하였습니다. 남편도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제31회 호렙산 기도회는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 역사적인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시는 구나' 감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작은 아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더라도 혼자서 호렙산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큰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의 고

백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동역자라 생각한다. 너희가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깨달으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뜻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자녀들은 따라가고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장희영 집사(광림서교회)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

마커스 보그 지음

탁월한 성서학자이자 작가인 마커스 보스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이 때, 보그의 지혜가 넘치는 글들을 모은 책을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가 왜 중요하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묻고 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보그 교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독교인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 깊은 지혜를 제시한다. 기독교인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비주의적인 체험 중심의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

티머서 R. 제닝스 지음

저자는 그리스도인 정신과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와 마음과 생각에 대한 신경과학과 뇌과학적인 연구와 신학,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 마음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냈다. 특히 수많은 기독교인 환자들을 치료해 온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 생기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부하며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낸다. 여자를 상대로 한 가정 폭력, 알콜중독, 불륜, 거짓말, 사기, 아동 학대 등 기독교인이라고 나아지지 않는 통계에 직면하며 성경 안에서 그 근본 원인과 뿌리를 탐색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마음에 관한 깊은 왜곡을 풀어낸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Holy
Spirit. (Romans 15: 13)

FILL IN []

The Holy Spirit MOVEMENT

2019 8·31

PM 4:00 잠실실내체육관



박성민 목사
한국CCC대표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선교사
순회선교단 대표



김정석 목사
광림교회 담임목사